

# “칩에 냉각수 흘러 직접 식힌다” LG, AI공조 기술로 시장 정조준

美, ‘데이터센터 월드’ 첫 참가  
CDU부터 터보칠러까지 총출동  
AI 서버 전용 정밀 솔루션 제시  
비컨으로 에너지 효율 등 극대화

LG전자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빠르게 늘고 있는 데이터센터 수요에 맞춰 공조(냉·난방) 기술력을 앞세운 냉각 솔루션 사업 확대에 나선다.

LG전자는 오는 14일(현지 시간)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데이터센터 월드 2025’(DCW 2025)에 처음 참가해 AI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냉각 기술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공기냉각과 액체냉각을 아우르는 맞춤형 솔루션 라인업을 공개하고, 데이터센터 구조에 최적화된 복합 냉각 방식도 제안한다.

가장 주목받는 제품은 ‘액체냉각 솔루션’으로, 서버 내 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핵심 반도체 칩에 냉각관을 부착하고, 냉각수를 흘려보내 열을 직접 식히는 방식이다.

LG전자는 액체냉각 방식에 최적화된 장비인 ‘냉각수 분배 장치’(CDU)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있다. 이 장비에는 고장 난 센서를 자동으로 바로잡아주는 가상 센서 기술, 필요한 만큼만 냉각수를 흘리는 인버터 펌프 기술이 적용됐다. LG전자는 이 제품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 완료하고 연내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할 계획이다.



LG전자가 14일(현지 시간)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데이터센터월드 2025’에 처음 참가한다. 위 사진은 LG전자 모델들이 HVAC 기술력을 기반으로 개발한 냉각수 분배 장치(CDU)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LG전자

공기냉각 방식의 대표 제품도 선보인다. ‘무급유 인버터 터보칠러’는 대형 데이터센터의 실내 온도를 낮추는 장비로, AI 기술을 활용해 안정적인 운전을 지원한다. 자기 부상 방식의 회전 기술을 적용해 마찰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공기 흐름을 정밀 제어하는 ‘팬 윌 유닛(FWU)’과의 연동으로 냉방 성능도 끌어올렸다.

LG전자는 공기냉각과 액체냉각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도 함께 제안한다. 전력 소비가 많고 발열이 심한 AI 서버에 맞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냉각 방식을 조합해 효율을 높여준다는 전략이다.

실제 환경에서의 테스트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칠러공장 내에 AI 데이터센터 전용 테스트베드를 새로 구축했다. 서버 랙과 냉각 장비를 설치해 실제 운용

환경을 구현하고 있으며, 장비를 액체에 담가 냉각하는 ‘액침냉각’ 기술도 함께 연구 중이다.

AI 기반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비컨’도 함께 소개한다. 이 시스템은 건물 내 온도와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 분석해 에너지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솔루션으로, 데이터센터와 같은 고효율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적합하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ES(Eco Solution)사업본부를 신설하고, 냉각을 포함한 공조 기술 기반의 B2B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LG전자는 칠러부터 CDU까지 다양한 냉각 솔루션을 갖춘 준비된 기업”이라며 “차별화된 공조 기술을 기반으로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B2B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귀뚜라미, 2030년 3조 매출 목표 ‘청신호’

연결기준 1.25조 기록 5년째 매년 성장

귀뚜라미그룹이 5년째 매년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2030년 3조원 매출’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와 극심한 내수 부진에도 달성한 실적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귀뚜라미홀딩스는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2507억원, 영업이익은 4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 23.5%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9352억(2020년)→9733억(2021년)→1조2024억(2022년)→1조2372억원(2023년)을 각각 기록하며 매년 성장했다.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그룹의 난방, 냉방, 에너지 계열사인 ▲귀뚜라미 ▲귀뚜라미범양냉방 ▲신성엔지니어링 ▲센츄리 ▲귀뚜라미에너지 등 21개 종속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아이템 다각화를 통해 세계적 불이 꺼지지 않는 ‘종합 난방방 에너지그룹’으로 지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난방 사업 분야는 거꾸로 N EW 콘텐싱 P10, 거꾸로 ECO 콘텐싱 L20 등 신규 출시한 친환경 콘텐싱 보일러와 카본메트, 카본보드 등 난방 아이템의 판매 호조로 국내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다. 해외 영업 강화와 현지 특화 제품 생산·판매를 통해 해외 매출도 꾸준한 성장세에 있다.

냉방 사업 분야는 냉각탑 국내 1위, 드라이룸 시스템 국내 1위, 원자력 발전소와 특수선 냉동공조기기 국내 1위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룹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수백억 상당의 발전소용 냉각탑 프로젝트 ▲국내 40메가와트(MW)급 데이터센터 쿨링시스템(Cooling System) ▲해외 원자력발전소 냉동공조 사업 등 핵심 산업에서 신규 수주를 이어가며 매출 성장을 이뤘다.

/김승호 기자

## 분야별 창업 해외진출 전담기관 가동

중기부, 액셀러레이팅 기관 8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8곳을 선정했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유망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지난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2022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2023년)에 따라 범부처 협업 사업으로 개편해 창업기업의 업종·분야별로 전문화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주관기관(부처) 가운데 먼저 농업기술진흥원(농림축산식품부)은 농산업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푸드·에그테크, 그린바이오 창업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교통부)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강점을 살려 관련 창업기업의 독일·핀란드 진출을 돕는다. 도이치반, MS,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협업, 현지 창업 생태계와의 교류를 추진한다.

한·아프리카재단(외교부)은 기관이 보유한 아프리카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후테크·에이징테크 창업기업의 남아공·이집트 진출을 지원한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환경부)는 유럽시장 진출 지원 노하우를 활용해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의 독일 진출을 돕는다. 산업 분야에 대한 환경부의 전문성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글로벌 네트워크 간 시너지가 기대된다.

/김승호 기자

## 중소업체 “지속가능 성장위해 3대 개혁 필요”

중기중앙회 등 13개 단체 참여  
차기 정부에 ‘혁신처방전 100개’ 제출

범 중소기업계가 차기 정부에 ‘3대 분야, 100대 정책과제’를 강력하게 제안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부’ 신설,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혁신위원회 신설,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인 특화 유통 채널 확대,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제21대 대통령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안’(사진)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관련 단체 외에도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재정학회 등이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안서에서 “한국경제가 저성장·양극화·혁신성저하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SME(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 9대 아젠다, 100대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나라의 성장엔진 곳곳이 ‘한국병’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순이익이 감소해 한계기업이 늘고, 노인부양은 증가하고 있지만 쉬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가계부채가 쌓이면서 소비보다 생계가 우선인 현실이 되고 있다. 국가채무가 2023년 1127조원에서 2027년엔 1418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부 역할은 갈수록 줄고 있다.

‘10대 수출 상품’의 경우 85년도에는 65년도와 비교해 반도체, 석유제품, 영상기기 등 7개 품목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다 85년 대비 2005년에는 5개(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 2022년(2005년 대비)에는 디스플레이만 유일하게 포함되는 등 역동성도 사라지고 있다.

또 미국(시가총액 기준)은 애플(1976년), 마이크로소프트(1975년), 엔비디아(1993년), 아마존(1994년), 알파벳(1998년) 등 창업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기업집단 자산기준)은 삼성(1938년), SK(1953년), 현대차(1967년), LG(1947년), 포스코(1968년) 등 전통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부모소득이 높으면 상위권대 진학률이 덩달아 올라가

고, 가구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 역시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부문에선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망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고령인력 계속고용 기반 마련 ▲팜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여성특화기업 지원 ▲규제배심원제도 도입 ▲중소기업 범위 조정기준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조업 부흥’에선 ▲중소기업 업종별 AI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중소기업 글로벌화 총괄·조정 추진 근거 마련 ▲협동조합 중심 글로벌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상속세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 ▲합리적 채무조정을 위한 제3자 구조개선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경제생태계 순환’ 부문에선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건설공사 업역간 경쟁체계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유형별 재기 지원 ▲소상공인 주요업종 대상 E-9 허용 ▲유사·중복 특구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김승호 기자 bada@

## 프리미엄 체험 ‘시몬스 맨션’ 익산 상륙

시몬스, 뷰티레스트 블랙 등 진열

시몬스가 전북 익산시 신동에 ‘시몬스 맨션 익산점’을 열었다.

13일 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시몬스 맨션 익산점은 삼성스토어 익산점, LG 베스트샵 원대점, 롯데마트 익산점 등 대형 가전 및 마트가 자리한 핵심 상권에 자리해 쇼핑 편의성이 높다. 또한 주변에 광신프로그램센터, 익산자이그랜드파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향후에도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설 예정으로 가족 단위부터 예비부부까지 다양한 고객층의 유입이 기대된다.

시몬스 맨션은 시몬스본사에서 인테리어, 진열제품, 홍보 등 관련 제반 비용 100%를 지원하는 위탁 판매점이다.

새 매장은 195㎡ 규모로 시몬스 침대 최상위 라인인 ‘뷰티레스트 블랙(Beautyrest BLACK)’과 침대업계 메가히



시몬스 맨션 익산점 내부 전경.

트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Beautyrest)’의 인기모델이 진열돼 자유롭게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 및 자녀를 위한 슈퍼싱글(SS) 사이즈부터 넉넉한 수면 공간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킹오브킹(KK)’, ‘그레이트킹(GK)’ 사이즈까지 여러 사이즈가 마련돼 주거 환경 및 개인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침대를 선택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